

2011. 32호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평협소식

서울시 중구 명동 2가 1번지 가톨릭회관 510호 TEL 02·777·2013 / 757·7851 FAX 02·778·7427

<http://www.clak.or.kr> E-mail: clak@catholic.or.kr

발행일 : 2011. 5. 13 발행인 : 최홍준





싣는 순서

❶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3

❷ 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4
>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6
> 인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6
>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7
>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7
> 전주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9
> 제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9



❸ 한국평협 회원 단체

> 마리아사업회	10
> 한국가톨릭 나사업연합회	11
> 한국가톨릭 여성협의회	11
> 광주 중재자이신 마리아 세나뚜스	12
> 레지오 마리애 서울 무염시태 세나뚜스	12



❹ 평협회장 단상 / “마음의 평화인가, 영원한 생명인가?”

14

❺ 인터뷰 人 / 대구대교구평신도단체협의회 김종해 회장

16

❻ 언론인 칼럼 / “5월에 사랑하고 나누고 싶은 것”

18

❼ 교황님 말씀 / 삼종기도 강론

19



알 릴

◎ 2011년 한국평협 제1차 상임위원회의가 오는 5월 27일(금)부터 28일까지 1박 2일간 안동교구 농은수련원 (경북 예천)에서 개최됩니다.



4 한국평협 명칭변경

한국천주교 주교회의는 작년 10월 공문을 통해 한국평협의 명칭을 변경하라는 권고를 보낸 이후, 지난 3월 춘계 주교회의 정기총회에서 이를 확정 의결하고 그간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라고 쓰던 한국평협의 명칭을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로 바꾸는 회칙개정을 승인함으로써 제3차 세계평신도대회 이후 1968년 설립된 후 42년간 써오던 이름이 변경됐다. 다만, 약칭은 종전대로 ‘한국평협’으로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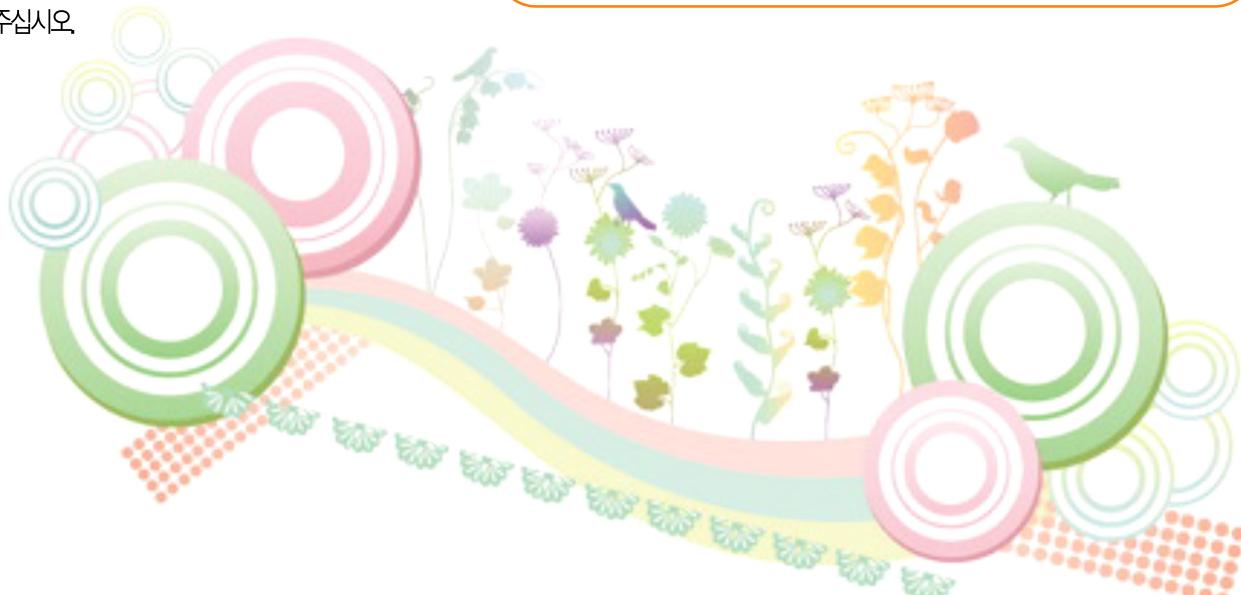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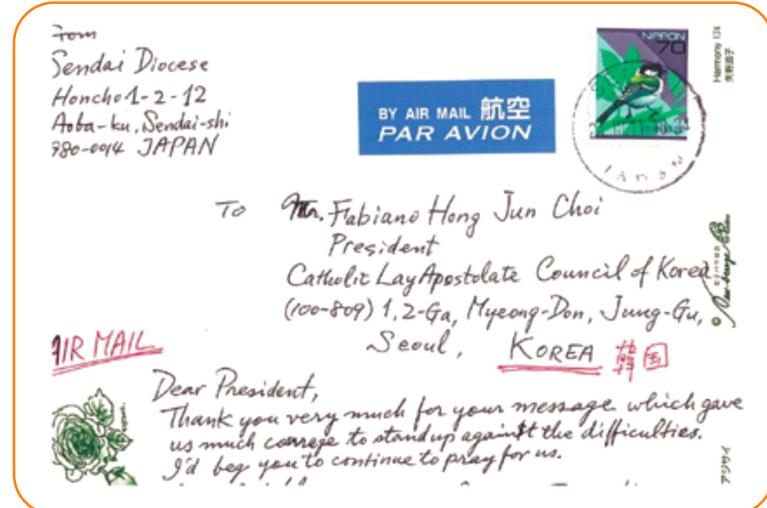
5 일본 센다이 교구장 감사엽서 도착

지난 3월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큰 피해를 본 일본 센다이(仙台) 교구에 보낸 한국평협 최홍준 회장의 전문에 대해 센다이교구 히라가 테수투오 주교의 감사의 마음을 담은 친필 엽서가 지난 4월 20일 도착했다.

〈엽서내용〉

회장님께,

회장님께서 보내신 전문 감사히 받았습니다. 그 메시지는 우리가 어려움을 이기고 일어설 수 있도록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 해주십시오.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평신도학교 공의회과정 개강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최홍준, 담당사제 민병덕)는 공의회가 끝난지 40여 년이 지난 오늘의 시점에서 공의회의 정신과 공의회가 남긴 결실인 16개 문헌을 좀 더 많은 이들에게 올바르게 전하고 평신도 봉사자를 양성하며, 평신도사도직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7년 시작한 평신도학교 ‘공의회과정’ 2011년 1학기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1학기는 지난 3월 7일 김성태 신부의 강의를 시작으로 15주간 매주 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씩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에서 이루어진다. 이번 1학기는 80여 명의 평신도, 수도자, 사제가 등록해 열심히 청강하고 있다. 1학기 수료식은 7월 4일에 있으며 강의 내용과 강사는 다음과 같다.

내 용	장 사
보편공의회의 의미와 역사	김성태 신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배경과 의의	김성태 신부
전례현장 I	정의철 신부
전례현장 II	정의철 신부
교회현장 I	김영국 신부
교회현장 II	김영국 신부
계시현장 I	조규만 주교
계시현장 II	조규만 주교
사목현장 I	민병덕 신부
사목현장 II	민병덕 신부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인간관	박준양 신부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구원론	박준양 신부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성사론	손희송 신부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마리아론	손희송 신부



산정호수에서 사무국 연수 개최

서울평협 사무국은 지난 4월 13일(목)부터 1박 2일로 산정호수에 위치한 한화콘도에서 담당사제 민병덕 신부와 함께 연수를 개최했다. 최홍준 회장, 유영훈 사무국장과 신동수 과장, 김아론 서기가 함께 한 가운데 서울평협이 나아갈 방향과 사무국의 임무와 역할 등에 대해 나누고 자연과 더불어 재충전의 기회를 가지며 주님 사업에 함께할 것을 다짐했다.

단체 소식

<가톨릭경제인회>

제3회 이주노동자위안잔치 주최

서울대교구 가톨릭경제인회(회장 최철수)는 4월 24일 부활절을 맞아, 혜화동 동성고등학교에서 제3회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잔치를 열었다. 대강당 1,2층을 가득 메운 2,000여 명의 이주노동자들과 내외빈이 함께 봉헌한 미사에서 염수정 주교는 “주님이 가져다주신 부활의 희망, 즉 참되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다시 이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얻으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가톨릭경제인회 회원들의 성금과 문화체육관광부, 우리은행의 후원금으로 준비한 라면, 세제, 식용유 등 생필품과 대한간호협회에서 기증한 가정용 구급함을 참가한 이주노동자에게 증정했다. 또 이주노동자에게 무료 진료를 펼치고 있는 라파엘클리닉에 성금 2,000만 원도 전달했다. 이날 가톨릭경제인회 최철수 회



장은 축사에서 이주노동자들에게 “현재는 어렵고 힘들지만, 어제가 아닌 내일을 보면서 앞으로 나아가자”는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주노동자들은 미사 후 운동장에 마련된 필리핀, 베트남, 남미 등 각국의 음식을 나누고 담당사제 조학문 신부의 기증품과 우리은행에서 별도로 준비한 선물을 받는 등 즐거운 한 때를 보냈다.

서울 가톨릭경제인회 회원들은 행사에 소요되는 성금 지원뿐만 아니라, 이날 행사에서 안내, 행사 진행, 음악 연주, 이주노동자 선물 배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행사의 의미를 마음 깊이 새기는 하루를 보냈다.

<서울대교구 가톨릭 여성연합회>

3월 정기 월례강좌

서울대교구 가톨릭 여성연합회(회장 박은영)는 지난 3월 22일(화) 정기 월례강좌에서 한국틴스타 대표인 배 마리진 수녀를 모시고 “청소년 성(性)교육 과연 어떻게?”라는 주제로 특강을 마련했다.

명동성당 문화관 소성당에서 개최된 이날 강의에서 배 마리진 수녀는 “문화가 발달하고 있지만 성교육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며 “관계의 새로운 소통이 필요한데 부모에게 1차적 책임과 권리가 있다. 성교육의 가장 좋은 교육자는 부모이며 제대로 된 매뉴얼을 잘 가르치면 자녀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다”라고 했다. 또한 “제대로 된 성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성 존중과 자기감정의 존중, 나아가 타인을 존중하게 되었다”며 “이제는 성교육에도 기술이 필요하며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11 사랑의 바자 개최

지난 4월 2일 가톨릭여성연합회는 교구 총대리 염수정 주교와 명동성당 주임 여형구 신부, 하유설 신부, 최홍준 평협 회장 등을 초대해 ‘사랑의 바자회’를 열었다. 자선 바자는 교회 안팎에서 기증한 물품으로 구성됐으며, 특히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추기경이 기증한 도자기, 염수정 주교가 기증한 각종 양주가 많은 이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날 바자 수익금 전액은 미혼모시설, 다문화 가정 등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한다.

4월 정기 월례강좌

가톨릭 여성연합회 2011년도 4월 정기 월례강좌는 지난 2월에 이어 태아보호·생명문화 연구가인 이광호 박사를 모시고 “인문학 교육으로서의 성(性)교육”이라는 주제로 지난 4월 26일(화) 특강을 마련했다. 이날 강의에서 이광호 박사는 “성적 자극이 넘쳐나는 대중문화는 본질적으로 죽음의 문화이다”며 “근본적인 방식으로 문화를 바꿔줘야 하며, 정결의 가치가 훼손된 문화는 생명을 지켜낼 수 없다. 정결은 생명수호의 힘이다”고 했다.

또한 “종교와 인문학 교육을 하지 않고 쾌락주의에만 빠져있다. 선한가치가 내면화 되어 있다면 절대 욕망을 따라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본당 회장단 연수회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김홍거, 담당사제 임기선)는 지난 3월 5일~6일 충남 전의 정하상교육회관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본당 공동체를 건설합시다'를 주제로 본당 회장단 연수회를 가졌다.

소공동체 사목의 필요성과 소공동체 중심의 선교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으로 교구 복음화 10% 달성을 한 발 더 나아가고자 마련한 연수에 14개 지구 91개 본당 250여명이 참석했다. 첫 날, 소공동체 만들기 작업을 통해 실제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직접 실행해봄으로써 회장단들이 본당 소공동체 참여의 중요성을 직접 경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또 본당 소공동체의 현실과 대안에 대한 그룹토의를 하면서 각 본당이 가진 어려움과 소공동체로 인해 본당이 활성화 된 경우를 서로 배우고 나눴다.

이튿날에는 선교에 대한 강의와 그룹토의로 소공동체가 선교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평협 상임위원 단합

지난 3월 18일~19일 평협 상임위원들은 담당사제와 함께 당진 왜목마을에서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그동안 한 일을 되돌아보고 올 한 해 동안 해야 할 중요한 일정들을 다시 점검하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평협 상임위원으

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했다.



인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인천교구 설정50주년 기념 116개 성당도보순례

인천교구는 지난 3월 12일 답동주교좌성당에서 교구 설정 50주년을 기념하는 도보순례단 발대식을 갖고 6월 6 일까지 3개월간 교구 116개 모든 성당과 신학교 갑곶성지 등을 순례하는 대장정에 돌입했으며 사무처장 김용환신부도 성당도보순례에 함께 순례했다.

인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문기득, 담당사제 김용환)가 주관하는 이번 도보순례는 교구설정(1961년) 당시 9개 본당에서 반세기만에 116개 본당 규모로 성장한 것에 감사하면서 교구민들의 신앙을 성숙시키고 지역사회에 기톨릭을 알리고자 마련됐다.



이날 250여 명의 도보순례 참가자들은 교구장 최기산 주교 주례로 발대미사를 봉헌했으며 최기산 주교와 정신



철 보좌주교는 도보순례자들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잡아주며 격려를 해줬다. 첫날 답동주교좌, 해안, 화수동, 송현동, 송림동, 송림4동 성당을 거쳐 다음날은 영종, 신공항, 용유성당까지 중동구 9개 성당을 차례로 순례했다. 3월 12일부터 주말마다 성당순례를 계속 했으며 4월 23 일 토요일까지 65개 성당 도보순례를 마치고 부활을 맞이하여 사순시기에 뜻 깊은 성당도보순례가 됐다.

한식 맞이 위령미사 봉헌

인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가 주최하는 한식 맞이 위령미사가 지난 4월 6일(화) 오전 11시 한식을 맞이해 교구 묘원 3개소에서 봉헌됐다. 백석 하늘의 문 묘원에서는 정신철 보좌주교의 집전으로 봉헌됐으며, 마전동 묘원에서는 사목국장 김용환 신부, 포동 묘원에서는 포동 본당 주임 박창목 신부의 집전으로 봉헌됐다. 백석 하늘의 문 묘원에는 250여 명의 신자들이 미사에 참석하였으며 미사 중 강론에서 정신철 보좌주교는 ‘묘지 앞에 십자가표시가 돼있는 뜻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뜻을 묵상하는 의미’로 마음이 가난한 삶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 욕심 그리고 이기심을 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사순시기에 맞이한 한식미사에 깊은 신앙고백을 강조했다.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본당회장, 교구단체장 춘계연수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강신근, 담당사제

이형수 목사)는 『2011년 본당회장, 교구단체장 춘계연수』를 지난 4월 9일(토) 마산교구청에서 개최했다. 62명이 참석한 이번 연수는 개회식과 특강(책 읽는 그리스도인), 2011년도 추천도서 발표, 사도직공부(평신도사도직 교령)와 친교의 만찬 순으로 기획했다.

특강에서 김정훈 신부(봉곡동)는 ‘책 읽는 그리스도인’을 주제로 책을 읽는 이유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했으며,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통해 영혼을 맑게 하고 운동을 통해 육체적 건강을 지키며 독서를 통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게 한다는 진리를 깨우쳐주었다.

그리고 제2회를 맞는 책 ‘독후감쓰기 공모전’을 위한 추천도서를 발표하고 포스터를 제작해 각 본당에 부착하도록 했다. 추천도서는 2010년 11월부터 5개월 동안 접수한 좋은 책 중에서 엄선하여 13선을 추천했다.

담당사제 이형수 목사는 회장, 교구단체장 등 지도자들이 먼저 좋은 책을 읽고 묵상하여 교회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당부했다.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3월 상임위원회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서정권, 담당사제 박성열)는 3월 12일 상임위원회의를 갖고 올해 새로 임명된 상임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사제와 평신도 어울림 한마당, 단체평협 산행의 건에 대해 토의했다. 또한 교구의 당면과제인 나주 윤율리아에 대한 평협의 선언



문을 협의하고 부활 전후로 해서 발표할 것을 결의했다.



여성을 위한 하루파정 개최

여성위원회(위원장 고문희, 담당사제 박성열)는 3월 14일 평생교육원에서 본당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 7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하루파정을 갖고 '간음하다 잡힌 여자'(국재량 신부)와 '교회 안에서 생명력 있는 여성 신자란?'(안호석 신부) 특강을 들으며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여수지구 임원연수회 개최

여수지구 평협(회장 김형필, 담당사제 정병옥)은 3월 20일 문수동성당에서 지구 내 본당 사목협의회 임원과 제단체장을 대상으로 연수회를 개최했다. 2011년 교구장 사목교서 「전례의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출발」에 대해 교구 사목국장 박성열 신부의 특강과 각 지구장 신부의 특강, 각 분과별 분임토의를 통해 각 본당의 사목교서 실천 방안과 사례들을 듣고 의견을 나누는 유익한 시간이 됐다.

단체 소식

의사회, 간호사회 피정

가톨릭의사회(회장 양영철, 담당사제 박상선)와 간호사회(회장 윤영희, 담당사제 박상선)는 합동으로 4월 3일 명상의 집에서 70여명의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성숙한 공동체"라는 주제로 오성균 요셉 신부(예수고난회)의 특강으로 피정을 가졌다. 가톨릭 의료인이 갖춰야 할 자세에 대해서 다양한 비유와 유머로 강의해 주시어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됐다. 한편 의사회에서는 매월 한차례 광산구 이주민회관에서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의료봉사를 실시하며,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이주민에게는 의사회 회원들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하고 있다.



예비신자 교리교사대회

교리교사회(회장 최영만, 담당사제 박성열)는 4월 30일 강진 청자골 염지마을에서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여러 가지 게임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교리교사로서의 소명의식과 자긍심을 다질 수 있는 예비신자 교리교사대회를 열었다.

전주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유장훈 요셉 몬시뇰 고희 축하미사와 축하연

전주교구 총대리이며 평협 담당사제인 유장훈 몬시뇰의 고희 축하미사와 축하연이 성요셉 대축일인 지난 3월 19일(토)에 이병호 주교와 교구청 신부, 수녀, 직원, 평협과 여성연합회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구청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몬시뇰은 미사 강론에서 “나머지 생은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의 처지가 되어 생각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말했다.

미사 후 열린 축하식은 여성연합회의 꽃 목걸이, 교구청 직원 친목회의 꽃 바구니, 평협의 기념예물 증정, 강상근 평협회장의 축사, 몬시뇰의 답사, 소프라노 박양숙 자매의 축가로 이어졌다. 이병호 주교는 “몬시뇰은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반세기 넘게 같은 길을 걸어온 다정한 친구이고 가장 큰 모범을 보여준 인물”이라며 “앞으로 하느님 안에서 기쁨과 희망의 길을 걷길 바란다”고 축원했다.

이어 베풀어진 축하연에서는 몬시뇰에 대한 교구청 신부와 평협 대표 등의 큰절과 케이크 절단, 축일축하노래, 건배와 이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함께 나누며 몬시뇰의 앞날과 영육간의 건강을 기원했다.



제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제1기 사회교리학교 개교

제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문덕영, 담당사제 고병수는 교우들이 오늘날의 사회문제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알아보고 그리스도인의 일상생활을 제대로 성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돋기위해 3월 7일 오후 7시 연동성당에서 ‘제주교구 제1기 사회교리학교’를 개교했다.

교구장의 2011년도 사목지침인 ‘지역사회와 어우러지는 소공동체’의 실천지표인 ‘교회의 가르침인 사회교리를 공부하며 나누기’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이 날 개교식에는 교구 평협 상임위원, 본당사목평의회 임원, 교구 단체장등 280여명이 참가했다.

한편 교구장 강우일 주교는 금년도 사목교서에서 “복음 선교의 일꾼으로 파견되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인간의 권리와 의무, 인간의 성장과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가정생활, 사회생활, 국제관계, 평화, 정의, 개발 등에 관한 교회의 명시적 가르침인 사회교리를 알고 새겨야 합니다(현대의 복음선교 29). 교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있는 힘을 다하여 기아, 질병, 문맹, 빈곤, 무역관계의 불의, 경제적, 문화적 신식민주의 등 인간에게 소외된 삶을 강요하는 모든 것을 극복하고자 노력하여 싸워 왔습니다(현대의 복음선교 30).”라고 강조했다.

사회교리학교는 개교식에 이어 강우일 주교의 ‘인류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의 계획’ 강의를 시작으로 14주 동안 진행되어 6월 20일에 수료식을 갖는다.





마리아사업회

2011 하루마리아폴리

포콜라레 운동인 마리아사업회의 2011하루마리아폴리는 <하늘로 이어지는 빛의 길>이라는 주제로 4월 3일, 9일, 10일 전국 17곳에서 총 4,000여 명이 참석했다. 처음으로 <청소년을 위한 하루마리아폴리>가 서울 서강대에서 열리고 청주, 구미, 진주 등에서도 처음으로 하루마리아폴리가 열리는 등 포콜라레운동의 한국 진출 42년 만에 가장 많은 곳에서 열린 하루마리아폴리로 기록됐다.



예년에는 부산, 대구 등 큰 도시 한 곳에서만 열렸던 영남지역의 하루마리아폴리가 올해는 처음으로 회원들의 구역공동체를 중심으로 8곳에서 다양하게 열렸다. 부산에서는 동래, 해운대, 하단 구역으로 나누어서, 대구는 동부, 서부, 수성 구역 등으로 나뉘어 열렸고, 경북 구미와 경남 진주에서도 각각 하루마리아폴리의 불꽃이 피워졌다. 총 1,250명의 영남지역 참가자들 가운데 포콜라레운동을 이번에 처음 접한 참석자들은 반 정도에 달했고, 지난 수개월간 평화방송 TV에서 방영된 <하.하.하.>방송을 보고 스스로 찾아온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한편 4월 10일 청소년 중심으로 새로운 형태의 하루마리아폴리가 처음 열린 서울 서강대 이냐시오관은 청소년 참가자들의 환호와 미소, 박수 등 <긍정의 에너지>로 가득했다. 가족, 친구, 공부, 미래에 대한 꿈이라는 청소년 공통의 문제 앞에서 늘 고민하고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이날 하루마리아폴리는 삶의 참된 행복을 발견하는 장이 됐다. 이날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청소년사목위원회 위원

장 이기현 주교(의정부 교구)는 영상으로 보낸 메시지에서 “우리 교회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하루 마리아폴리를 하게 됨을 축하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좋은 시간 가지며 우리 삶의 보물이 되신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기 바랍니다.”라고 축원했다.

서강대에서 총 547명의 참가자 중 서울 경기, 강원도, 청주, 전주 등지에서 온 청소년 참가자만 266명이었고 특히 강원도에서는 버스를 대절해 121명의 청소년이 참가했다. 포콜라레운동의 청소년 회원들인 3전들이 양성 담당자들과 서울 강북 포콜라레 구역공동체 전체의 섬세한 지원을 받으면서 지난 수개월 간 자체적으로 준비해온 노래, 춤, 경험담, 레크레이션 등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온 청소년 특유의 <순수함>과 <열정>은 동년배들의 마음을 정복하기에 충분했다. 특히 불치병을 앓으면서도 끝까지 사랑의 삶을 실천해 지난해 9월 포콜라레의 첫 복자로 선포된 이탈리아의 젊은이 <끼아라 루체 바다노>의 삶이 소개되면서 청소년들에게 신앙과 성덕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었다. 또 학교에서 왕따 친구를 도와준 일, 수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던 선생님을 격려해드린 경험, 진로를 고민하는 아들을 격려해 체육대학진학을 도운 의사아빠 이야기 등 청소년이 공감할 만한 삶의 이야기들도 전달됐다.

전남북 하루마리아폴리는 이병호 주교와 사제 13명, 개신교 신자 16명 등 410명이 참석한 가운데 4월 9일 오후 1시~오후 5시 전주대학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에서 파견 미사를 주례한 이 주교는 강론을 통해 “포콜라레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작은 그리스도, 작은 마리아로 살아가면서 작지만 큰 움직임을 가져가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한 후, “여러분은 벼림받은 예수님을 선택하면서,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생명을 얻고 주는 사람들이니 서로 손잡고 기도하면서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서 갈 수 있는 은총을 구하자”고 역설했다.

이날 참석했던 한 개신교 신자는 “교황님께서 포콜라레가 교회가 되어야 하고, 교회가 포콜라레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했다. 이곳에 성령께서 함께 계심을 확인했고 현 순간에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그 빛이 하늘로 이어지도록 노력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4월 10일(일) 오전 10시~오후 5시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 충남지역 하루마리아폴리에는 대전교구장 유흥식 주교, 김종수 보좌주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파견미사를 주례한 김종수 주교는 주제인 <하느님의 뜻>과 관련



해 “하느님의 뜻을 가장 잘 실천하신 분은 ‘마리아’ 이시고 바로 여러분 마리아사업회는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격려했다.

한국가톨릭 나사업연합회



정기 이사회

한국가톨릭 나사업연합회 《2011년 정기 이사회》가 2011년 4월 18일 오전 10시 서울 합정동 연합회 사무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정기 이사회에서는 2011년 사업 집행 계획 및 2011년 해외지원 내역이 의제로 진행됐으며 예산(안)대로 승인했다. 승인된 내역에 따르면 2011년 해외지원 예산은 총 8,000만원으로 중국 연길 부산 분도회에 1,000만원, 중국 사천성 외방선교회에 2,500만원, 아프리카 수단 살레시오회에 3,000만원, 인도 메딕주 말쯤의 선교 수도회에 1,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연합회 회원 감소에 따라 연합회 운영에 참가할 회원의 충당을 목적으로 후원회원의 연합회 운영회원을 선임하고자 선임 규정에 대해 논의 했으며 희망자에 한해 신청받기로 결정했다.

한국가톨릭 여성협의회

전국이사회

한국가톨릭 여성협의회는 지난 3월 28일(월)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1층 회의실에서 이사회 모임을 가졌다. 이날 열린 이사회에서는 ‘제37차 정기총회’에 관한 안건을 가지고 활발한 논의를 했다. 한국가톨릭여성협의회는 2011년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마산교구 가톨릭 교육관에서 ‘생명과 여성’을 주제로 정기총회 및 연수회를 갖는다.



제37차 정기총회 및 제29차 연수회

한국가톨릭여성협의회는 지난 4월 27일부터 29일 마산 가톨릭 교육관에서 ‘생명과 여성’을 주제로 제37차 정기총회를 열고 생명수호운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서울, 마산 등 10개교구 64명의 임원이 참가한 이번 총회에서 여성협의회는 △어머니의 사랑으로 생명을 지키자 △어머니의 사랑으로 가정을 지키자 △어머니의 사랑으로 바른 삶을 이끌어 내기로 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차기 회장으로 대전교구 배순희(아가다)회장이 선출됐고, 부회장으로는 서울대교구 박은영(이사벨라) 회장이 선출됐다.





광주 중재자이신 마리아 세나뚜스

지도수녀연수회

광주 중재자이신 마리아 세나뚜스(단장 김남철, 담당사제 횡양주)는 3월 15일 광주 명상의 집에서 50여 명의 교구 레지오 마리애 지도수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수회를 실시했다. 시작기도에 이어 전 세나뚜스 담당사제인 박영웅(가브리엘) 신부의 '영적대리자의 역할' 이란 주제 강의가 있었다. 이후 '본당에서 실직적인 레지오 사도직 활동'에 대해서 4개조로 나누어 그룹토의를 했으며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레지오 마리애의 발전을 모색하고 담당사제(횡양주 안토니오)의 파견미사로 마쳤다.



레지오 아카데미 교육

광주 중재자이신 마리아 세나뚜스는 레지오 아카데미 교육을 4월 4일(월)부터 5월 2일(월), 4월 6일(수)부터 5



월 4일(수)에 5주간 광주지역은 평생교육원에서, 순천·광양지역은 저전동성당에서 1,0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했다.

김용운 신부의 '고해성사'란 주제로 죄와 죄인, 세상의 죄, 공동체의 죄, 치유, 용서, 자유와 해방에 대한 강의를 시작으로 오갑현 신부의 '성체성사', 김계홍 신부의 '혼인성사', 이재술 신부의 '사랑과 정의', 횡양주 신부의 '미신과 우상숭배'에 대한 강의로 5주간의 레지오 아카데미 교육 수료증 수여와 함께 파견미사로 마쳤다.

레지오 마리애 서울 무염시태 세나뚜스

제5차 레지오 마리애 전단원 교리교육

레지오 마리애 서울 무염시태 세나뚜스(단장 한휘운, 담당사제 민병덕)는 2011년 3월 7일(월)부터 28일(월)까지 매주 월요일 4주 동안 명동 가톨릭회관 대강당에서 제5차 레지오 마리애 전단원 교리교육을 실시했다. 260여 명의 레지오 단원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대교구 사목국 김영주 아가다 수녀(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가 <제1편 신앙 고백>, <제2편 그리스도 신비의 기념>, <제3편 그리스도인의 삶>, <제4편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강의했다.



I단계 6기, 7기 교육

서울 무염시태 세나뚜스는 지난 3월 11일(금)부터 13일



(일), 4월 8일(금)부터 10일(일)까지 2박3일 간 의왕 아론의 집에서 레지오 마리애 1단계 6기와 7기 교육을 실시했다.



세나뚜스 직속 프레시디움 아치에스 행사

지난 3월 26일 명동 가톨릭회관 2층 강당에서는 세나뚜스 5간부와 68명의 세나뚜스 직속 프레시디움 단원이 참석하여 민병덕 비오 신부의 주례로 미사와 아치에스 행사가 있었다. 모후이며 총사령관이신 성모님께 새롭게 충성을 다지는 시간이었다.



동정

▲최홍준 한국평협 회장과 권경수 부회장, 김길성 사무총장은 3월 30일 저녁 명동성당에서 춘계 주교회의 참석 주교 등 한국주교단이 봉헌한 교황 베네딕토 16세 피선 6주년 감사미사에 이어 코스트홀 만남의 방에서 주한 교황대사 오스발도 파딜랴 대주교와 주교단이 함께 한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2005년 4월 19일 교황에 선출됐으며, 한국 주교단은 춘계 주교회의 축회 기간 중에 기념 감사 미사를 봉헌하고 있다.

▲최홍준 회장은 또 3월 18일 명동성당에서 거행된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추기경 사제수품 50주년 금경축 축하행사에서 교황대사 파딜랴 대주교, 주교회의 의장 강우일 주교, 이명박 대통령(박인주 수석 대독),

동창사제 대표 최창무 대주교와 함께 축사를 했다. 서울대교구는 4월 19일 성목요일 성유축성미사 후에도 정진석 니콜라오 추기경 외 김병도 프란치스코 몬시뇰, 김득권 굴리엘모 신부, 임태경 루가 신부(와병중 불참), 유봉준 토마스 신부의 사제수품 50주년 축하식도 마련했으며, 서울평협은 회장 축사 외에 기도 기념 패를 사제들에게 증정했다.

▲변영철 수원평협 회장은 3월 25일 수원교구 주교좌 정자동성당에서 봉헌된 이성효 리노 수원교구 보좌주교 서품미사 후 축하식에서 축사를 했다. 최홍준 한국평협 회장(서울평협 회장)은 서정권 부회장(광주평협 회장) 강상근 감사(전주평협 회장), 정동진 안동평협 회장, 김길성 한국평협 사무총장, 유영훈 사무국장과 함께 이날 행사에 참석했다.

평협회장 단상 – “마음의 평화인가, 영원한 생명인가?”



입교자 또는 새 영세자 의식조사 때 거의 빼놓지 않고 물어보는 설문 가운데 하나가 “귀하는 무엇을 바라면서 가톨릭교회에 문을 두드렸습니까?” 하는 물음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서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냐,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냐고 묻고 있습니다. 어김 없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왔

다는 대답이 가장 많고, 정답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라는 거라고 일러줍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평화를 기대하면서 교회 문을 두드렸다고 하면 안 되는가, 틀린 대답인가, 하고 물어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왔다고 대답하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이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것도 솔직한 심경일 수 있을 것입니다. 차츰 교리를 배워가면서 ‘아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로구나!’ 라고 깨우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복음서에 나오는 마르타와 마리아 이야기(루카 10, 38-42)를 잘 알고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서시자 마르타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들었고, 마르타의 동생 마리아는 언니가 분주하게 손님 시중을 드는 것과는 달리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 말씀을 듣고 있었지요.

일반적으로 보면 열심히 일을 하는 언니 마르타가 옳고 부엌에 나가 보지도 않는 동생 마리아는 ‘얌체’ 같다는 판단이 들 수 있습니다. 명절 때 시댁에 가면 부엌에서 분주하게 일하는 며느리가 있는가하면, 방에서 다른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며느리도 있고, 어느 한쪽은 비난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언니 마르타가 예수님께 다가가서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들게 내버려두는 테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주십시오.”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께서는 무어라고 응답하십니까?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 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뜻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여기기로는 일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이 더 중요할 테지만, 여기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현세의 모든 일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앙과 투신으로 부르는 말씀의 ‘경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 이 일화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 신자는 믿지 않는 이와는 달라야

세례를 받아서 신자가 된 사람은 비신자로서 믿지 않는 사람과는 다릅니다. 또 달라야 합니다. 최근 ‘아시아 가톨릭 평신도대회 후속 워크숍’에서 평협 사회사도직연구소 오용석 소장이 요셉 클레멘스 주교의 강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평신도의 신원에 대해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말한 ‘사제도 아니고 수도자도 아닌 평범한 사람이란 부정적인 의미의 ‘레이 피플’(lay people)이 아니라 풍부하고 긍정적인 표현인 ‘레이 페이스풀’(lay faithful)로 표현했다”고 지적한 대목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아 교회의 일원이 된 ‘평신도’는 믿음으로 충실하고, 믿음으로 가득 찬 사람이라는 뜻이고 보면, 믿지 않을 때와는 이미 다른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에게 사도 바오로는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속된 기준으로 이해하였을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2코린 5,16-17). 요컨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과 마음이 새로워져,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 속에서 하느님의 모습에 따라 창조된 새 인간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에페 4,24). 그러니 우리는 세례를 받고 나서도 꾸준히 끊임없이 배우고 익힘으로써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이 매우 중요한 것

입니다.

‘평신도’를 주제로 1987년 10월 1일부터 30일까지 로마에서 열린 세계 주교 대의원회의에서 당시 교황청 평신도 평의회 의장 에두아르도 피로니오 추기경은 “진정한 그리스도적 삶의 증거는 신자 공동체 내의 교육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사회 복음화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 다음 “평신도 교육은 매일 매일의 그리스도적 삶의 실천을 통해서, 그리고 세속적인 삶의 현장- 즉 가정, 학교, 일터, 정치, 예술 등-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활동, 특히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에 대한 봉사로 구체화되는 이웃 사랑은 평신도의 그리스도적 삶의 핵심 부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참으로 새겨들어야 할 중요한 대목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곧 복음을 사는 것이 중요하고,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면서 교회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얼마 전 평화방송 TV에서 남녀 출연자들이 토론을 하는 중에 어느 자매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성당에서는 듣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해서 고통스럽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성당에서 ‘마음의 평화’가 깨어진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고, 말하는 이의 격조도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교회 안에서도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고, 관심을 가지면서 올바른 세상 만들기에 힘을 쏟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세상을 복음화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복음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5월 15일은 교황 레오 13세가 산업혁명 이후 노동자들의 처지를 보면서 1891년 사회회칙 「새로운 사태」를 반포한지 12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회칙이야말로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 즉 사회교리의 초석이 된 문헌입니다. 그리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에 따라 1983년에 새로운 「교회

법전」이 나왔고, 이 모든 내용을 담아서 1992년에 교황청이 내놓은 「가톨릭교회 교리서」는 제1편 ‘신앙고백’에서 믿을 교리를, 제2편 ‘그리스도 신비의 기념’에서 전례와 파스카 신비, 7성사를 다루고 있으며, 제4편에서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그리고 제3편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지킬 계명을 중심으로 교회의 사회교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새로운 사태에 비추어본 한국교회와 사회”를 주제로 최근에 개최한 세미나에서 발제자(박동호 신부)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가톨릭 사회교리”라는 공식 용어가 있기는 하지만, 이 용어가 특정 관심을 갖는 특정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처럼 들려 마치 선택의 대상인 인상을 주기에, 그냥 ‘가톨릭 교리’라고 부르고 싶다.”

최홍준 파비아노



각 교구 평협과 전국 단위 단체들로 구성된 한국평협의 격월간지 〈평협소식〉은 이번호부터 회원 단체와 교구 평협 회장들을 만나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도직 활동에 관해서 알아보는 ‘인터뷰’ 코너를 마련한다. 이번호에는 교구 설정 100주년 행사를 치러낸 대구대교구평신도단체협의회 김종해 회장을 만나봤다.

질문1: 대구대교구가 올해로 교구 설정 1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대구대교구에서는 어떠한 행사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지요?

김종해 회장: 대구대교구 100주년 축하하고 주님께 감사드리기 위해 열리는 경축대회는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라는 루카복음의 말씀을 주제로 5월 7일부터 15일까지 다양한 경축행사들로 이루어졌습니다.

5월 7일과 8일 대구시 남산동 대신학원 운동장과 성김대건기념관에서 바자, 사회복지박람회, 다문화 축제로 구성된 생명나눔 대축제를 연 것을 시작으로 ‘은총의 100년, 희망의 100년’ 전시회와 청년대회, 초청강연회, 성경암송발표대회, 청소년축제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경축대회 마지막 날인 15일에는 대구시민운동장 축구장에서 성직자와 수도자, 평신도 등 3만여 명이 모인 가운데 교구장 조환길 타대오 대주교님 주례로 100주년 기념 감사 미사를 봉헌했는데,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추기경님을 비롯해서 주한 교황대사 오스발도 파딜랴 대주교님,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강우일 주교님 등 여러 주교님, 그리고 한국평협과 여러 교구 평협 회장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 성하는 타르치시오 베르토네 추기경을 통해 축하 메시지를 전해주셨고, 파리외방전교회와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대교구, 대만 대중교구, 일본 나가사키교구 등 해외 자매협력 교구 인사와 각계 요인들도 대거 참석했습니다.

질문2: 3대 기념사업 가운데 제2차 교구 시노드는 교구 구성원들의 의견을 통해 교구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백년대계를 설정한다는 점에서 평신도들에게는 특별히 중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00년을 살아온 교구의 신자로서, 또 시노드 대의원으로서 각오가 어찌신지 궁금합니다.

김종해 회장: 대구대교구가 당시 조선대목구와 분리돼 독립 교구로 성정된 것은 1911년 4월 8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100주년이 되는 본날인 금년 4월 8일 대구대교구는 계산주교좌성당에서 제2차 시노드를 시작했습니다.

대구대교구는 ‘새 시대, 새 복음화’를 지표로, ‘새 복음화의 비전과 성숙한 교회 공동체 실현’을 의제로 ‘젊은이 복음화’와 ‘새 시대 선교’, ‘소외된 이들을 위한 교회의 관심과 배려’, ‘교구와 대

대구대교구평신도단체협의회 김종해 회장

리구 및 사제 생활’의 네 가지 의안을 확정하고, 성직자 108명, 수도자 38명, 평신도 304명의 대의원 450명을 선출했고, 이날 개막미사를 시작으로 6월 12일 제1차 총회에 이어, 몇 차례 총회를 거쳐 최종 건의안을 확정하게 됩니다.

저희 교구는 지난 1997년부터 99년까지 제1차 교구 시노드를 열고 교구 쇄신의 기반을 다진 바 있고, 이번에 제2차 시노드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직전 교황이셨던 요한 바오로 2세는 2000년 대회년 준비를 위해서 교서 〈제삼천년기〉(1994년)를 반포하시면서 대회년 준비의 일환으로서 교구 시노드의 개최를 권장하셨고, 제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평신도의 역할강조와 교회의 새로운 정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르침을 오늘 우리 교구의 구성원들 모두에게 심고, 뿌리내림으로써 쇄신과 도약을 이루는 일이 교구 시노드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저도 우리 교구가 함께 하고자 하는 ‘새시대 새복음화’의 내용을 더 깊이 깨닫고 어떻게 새복음화를 이룰지 우선 배우고 이해하고자 합니다. 시노드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고 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성령께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질문3: 3대 기념사업 가운데 새 주교좌대성당 건립도 눈에 띕니다. 이미 성전 건립기금 마련을 위해 사제들을 중심으로 전 교구 민들이 주머니를 열었다고 들었는데요, 특히나 대구의 경제 상황을 생각한다면 그리 녹록치 않은 결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 주교좌대성당의 건립은 우리 대구대교구 신자들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김종해 회장: 현재의 계산 주교좌성당이 교구 전체 행사에 신자들이 많이 입장하기는 너무 좁아서 사제서품식도 지금은 성김대건 기념관에서 거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새 주교좌성당은 대구대교구의 새로운 100년을 향한 이정표가 되어 교구내의 모든 전례와 집회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문화 영성의 가치를 펼치는 장소로서, 드넓은 광장과 아름다운 조경공간까지 갖춰서 비신자들과 함께 하는 친교와 휴식공간이 될 것입니다. 교구의 역사를 되돌아 볼 수 있는 다양한 유물과 영상도 준비될 것이므로 교육의 역할, 역사의 산실이 될 것입니다. 비록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하느님의 집을 지어드리는 데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정성을 모은다면 50만 대구대교구민이 못해낼 일도 아니라고 봅니다. 틀림없이 하느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질문4: 영성운동과 생명사랑나눔운동은 신자들에게 성화와 나눔 실천의 측면에서 100주년에 걸맞은 운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운동들을 통해 평신도들이 변화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요.

김종해 회장: 저희가 추진해 왔던 영성운동과 생명사랑나눔운동은 100년 전 조선대목구에서 대구대목구로 나뉜 놀라운 하느님



의 섭리와 신비와 영광의 경이로운 은혜를 되새기며 대구 대교구의 역사를 깊이 묵상하고, 온갖 어려움을 신앙 안에서 풍성한 결실로 승화시켰던 신앙선조(사제들과 평신도)들의 노고와 정신을 되새기며 감사와 일치로 새로운 100년을 향해서 힘찬 발걸음을 내딛기 위한 것입니다. 우선 은총의 100주년 세 가지 실천운동이 있는데 그것은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 맺기로서 성경읽기와 하루에 한 줄 성경 쓰기였고, 두 번째로는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 맺기로서 한끼 100원 봉헌운동을 벌였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과의 올바른 관계맺기로, 세 정류장 이하 걷기, 5층 이하 걷기였습니다. 또한 순교자의 발자취를 따라 개인과 단체, 가족끼리 성지를 순례하면서 순교의 얼을 되새기며 100주년에 대한 감사도 드렸고 성모당에서 교구내 156개 모든 본당이 매일 릴레이 순례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교구사 100대 사건을 뽑아서 만든 지향을 가지고 각 본당에서 모든 신자들이 묵상과 기도를 했습니다.

또한 생명사랑나눔 운동을 통해서 헌혈, 장기기증, 해외빈곤아동돕기 바자회 등을 개최해 교구 100년의 역사를 모든 신자들이 되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신앙이 전해진 이면에는 먼저 가신 신앙의 선조들, 사제, 수도자들의 크나큰 희생과 노력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뒤를 따라가야겠다는 새로운 각오들을 가질 수 있었고 또한 생명 사랑나눔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더 관심을 기울이고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 범위를 넓히고 세상에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큰 성과였습니다.

질문5 :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결국 100주년을 맞는 대구대교구가 새 시대 새 복음화를 실천하며 다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평신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김종해 회장 : 새시대 새 복음화는 단순히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현상을 보면 참 염려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이럴 때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재인식과 제몫을 해내는 일이 정말 중요하지요. 저희 교구에서 지금 진행 중인 시노드를 통해 좀 더 평신도의 역할이나 미래 교회의 비전이 제시되겠지만, 가만히 앉아서 개인영혼의 구원만을 위해 기도하던 시대는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사회에 열린 교회, 이웃에 열린 교회가 되어 평신도 자신이 실천하고 살아가는 신앙인이 돼야겠습니다. 요즘은 아이나 어른이나 편리함에 많이 젖어 있어 힘들고 귀찮고 어려운 일은 교회 내에서도 회피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까지 한국교회가, 저희 교구가 외적 성장을 많이 했다면 이제 새로운 100년은 내면을 채우는 일과 신앙인의 삶으로써 복음을 보여주고 선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자면 우리 평신도들이 좀 더 적극적이고 자발적이며 우리들의 아름다운 미덕이었던 희생과 봉사를 더 잘 실천해 세상의 참 빛이 되어 이 땅에 하느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함께 동참했으면 합니다.

질문6 : 현재 대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의 구성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회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김종해 회장 : 저희 교구 평협은 회장단 8명과 상임위원회 17명을 간부로 하고, 신심단체 17개, 직장 신우회 14개, 직능단체 13개, 동호회 17개, 학생교사단체 7개, 기타 18개의 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별 단체의 카리스마나 목적은 약간씩 다르지만 하느님께서 주신 단체의 카리스마나 목표에 따라 교구장님 방침에 따라 교구 일에 협력하고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신앙인으로서의 삶과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7 : 아울러 평협 회원들이 교구의 신자들을 대표해 어떤 모습으로 거듭나길 원하며, 거기에 따라 회장님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 건지 각오를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해 회장 : 저희가 3년 넘게 100주년을 준비해 오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열심히 교회 일에 참여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무관심하거나 소극적이거나 방관적인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누구에게 보이는 일도 아니고 자랑하려고 하는 일도 아닙니다. 저는 우리 신자들이 교회의 주인이란 생각으로 어떤 일이든 적극적이고 복음적이길 바랍니다. 저도 교구의 일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교구평협 회장을 하면서 각 단체들이 더 활성화되고 신앙생활에서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행사나 피정, 그리고 회의 등에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노고도 알고 각 단체의 사정도 잘 알아서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도와 드리고 싶습니다. 전임 회장단과의 만남도 가졌고 비슷한 성격의 단체의 장들의 모임도 가져보았는데 이런 일들을 계속해 나가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답 ; 한국평협 신동수 과장

5월에 사랑하고 나누고 싶은 것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미하듯 전국을 화사하게 수놓은 봄꽃들이 지고 나니 자연은 싱그러운 신록의 초목들로 더욱 빛이 난다. 창밖으로 ‘푸르름’이 짙어가는 인왕산을 바라보면서 1년 중 가장 좋은 ‘성모님의 달 5월’에 무엇을 꼭 해야 할까 생각해 본다.

사실 꽉 짜인 일정을 쫓아다니노라면 매일 매일이 그렇고 그런 반복의 연속이고 정작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하루 하루를 보내는 게 현실이다.

이달에는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주신 새 계명을 작은 것부터라도 실천하려고 마음먹는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당신보다 우리들을 더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에서 답을 찾아야 할 것 같다. 지난 성삼일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느낀 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주시면서 나눔을 강조하셨다는 점이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고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서로의 발을 씻어주어라”고 하신 것은 바로 나눔의 상징이다. 베드로가 “주님 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고 하자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아무런 뜻도 나누어 받지 못한다”고 하신 말씀에서 나눔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선종하신 지 2년이 지났지만 그분에 대한 추모의 정이 날이 갈수록 깊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새로워지는 김수환 추기경님도 생전에 나눔의 정신을 강조하셨고 그 정신을 이어가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

기계문명이 최첨단에 달한 요즘의 세상은 문명의 이기로 그만큼 편리해졌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간성이 점점 상실되는 비극도 함께 주어졌다. 자식이 부모를 폭행하고 하느님께서 주신 소중한 목숨을 쉽게 포기하며 부모가 게임에 빠져서 어린 자식을 짚어죽게 하는 어처구니없는 경우는 물론 소수의 예외로 치부될지도 모르나 모두 인간성 상실의 한 단면이고 사랑이 실종된 탓이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희망을 안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장 큰 유산인 사랑이다. 주위를 돌아보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면 예수님의 계명에 대해 믿음의 응답을 하여야 되겠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처지를 생각하고 해야리는 측은지심이 필요하다.

어느 수녀님이 사랑은 ‘사량’이라고, 즉 생각 사(思) 해아릴 량(量), 그러니까 ‘상대방을 생각하고 마음을 해아린다’는 뜻이라고 하신 대목이 가슴에 와 닿는다.

이 좋은 계절에 주님의 사랑을 되새기면서 나도 조그만 사랑을 실천해보자고 다짐해 본다.

주님, 오늘 저희가 주님께 받은 것을 이웃과 나누고 필요한 사람의 처지를 해아릴 수 있게 하소서. 아멘.

김태식 토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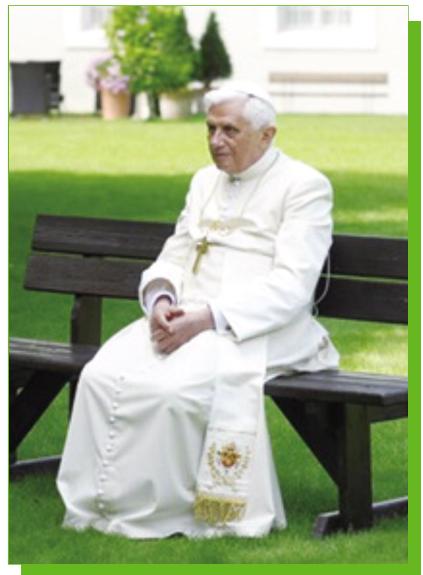
서울평협 홍보위원회 위원, 서울가톨릭신문출판인협회 회장, 연합뉴스 기획위원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의 삼종 기도 강론
부활 팔일 축제 내 월요일
카스텔 간돌포, 2011년 4월 25일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수亵시트 도미누스 베레!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셨습니다!) .알렐루야! 주님의 부활은 새로워진 우리 인간 조건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죽음을 이기셨고, 죽지 않는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바로 이 사건으로부터 교회의 모든 삶과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태어납니다. 바로 오늘, 부활 팔일 축제 내 월요일에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태동하고 있던 교회의 첫번째 전도 설교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우리는 모두 그 증인입니다. 하느님의 오른쪽으로 들어올려지신 그분께서는 약속된 성령을 아버지에게서 받으신 다음,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는 것처럼 그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사도 2, 32-33). 부활신앙의 특징적인 표징 중 하나는 오래된 전례 기도에서 영감을 받은 말씀으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라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부활 인사입니다. 이는 성 마태오 복음에 서술된 여인들에게 그려했듯 하나의 신앙 고백이자 삶의 약속입니다. 복음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께서 마주 오시면서 그 여인들에게 ‘평안하나?’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다가가 옆드려 그분의 발을 붙잡고 절하였다. 그 때에 예수님께서.’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레아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들은 거기에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28, 9-10). 하느님의 종 바오로 6세 교황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전교회는 복음 선교의 사명을 받고 있지만, 신자 각 사람의 활동은 전체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지상에 남아 있으면서 (떠나셨지만 머물러 계신) 예수님의 새로운 현존에 대한, 불분명하면서도 명백한 표징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 표징의 역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교황 바오로 6세의 권고 「현대의 복음 선교」 1975.12.8. 15장; 사도좌 관보 68 / 1976 / 14).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으며, 더욱 더 그분의 참된 증거자가 될 수 있을까요? 토리노의 성 마씨모는 말합니다. “누구든 구세주께 도달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분을 하느님의 오른쪽에 두어야 하며,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분을 하늘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설교 34a, 3; CCL 23, 157).” 다시 말해 끊임없이 마음과 정신의 시선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곳, 높으신 하느님을 지향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기도와 흡승 안에서 인간을 만납니다. 신학자 로마노 과르디니는 밝히고 있습니다. “흡승은 부수적이거나 이차적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의미와 존재의 최종적인 관심사입니다. 흡승을 통해서 인간은 순수하고, 단순하며, 거룩한 의미에서 가치가 있는 것을 알아봅니다(부활, 묵상, 1995년 브레사 발행).” 오직 하느님을 향할 줄 알고, 그분께 기도할 줄 알 때, 우리는 우리 삶의 가장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으며, 일상의 여정이 부활하신 분의 빛으로부터 빛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동방과 서방의 교회는 오늘 – 오랜 전통이 정의하듯 – 지혜로운 말씀의 선포자이자, 그리스도 교의의 기록자이신, 복음사가 마르코를 기념합니다. 성마르코는 오는 5월 7일과 8일 제가 사목 방문하게될 도시, 베니스의 수호성인이기도 합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시는 사명을 충실히하고 기쁨 가운데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도록 동정녀 마리아께 탄원을 드립니다.